

나가사키 평화 선언

“갑자기 뒤쪽에서 무지개 같은 섬광이 보이더니, 폭탄이 터질 때 나오는 강렬한 바람에 날아가 도로에 내리꽂혔습니다. 등을 만져보니 걸치고 있던 옷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고, 화상으로 끈적끈적하게 짓무른 피부가 손에 덕지덕지 묻었습니다. 3년 7개월간의 병원 생활, 그중 1년 9개월은 등 전체에 심한 화상을 입은 탓에 엎드린 채로 사경을 헤매야 했습니다. 가슴은 욕창으로 뼈까지 썩어들어갔습니다. 지금도 제 가슴은 깊이 도려낸 것처럼 움푹 파여 갈비뼈 사이로 심장이 뛰는 것이 보일 정도입니다.”

이 이야기는 열여섯 살 때 피폭되어 등 전체에 시뻘겁게 큰 화상을 입은 다니구치 스미테루 씨의 경험담입니다.

1945년 8월 9일 오전 11시 2분, 나가사키 상공에서 터진 한 발의 원자폭탄으로 그 해에만 7만 4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생존한 피폭자들도 수년, 수십 년 후에 백혈병이나 암 등에 걸렸고, 지금도 여전히 방사능으로 인한 고통과 불안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니구치 씨는 6년 전에 세상을 떠났지만, 생전에 마치 지금의 세상을 예견한 듯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과거의 고통은 잊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러한 망각이 두렵습니다. 이 망각이 새롭게 원폭을 긍정하는 일로 이어질까 두렵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이 장기화하면서, 러시아는 핵무기를 이용한 위협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른 핵보유국들도 핵무기에 더욱 의존하거나 핵전력을 증강하려는 움직임을 가속하여, 핵전쟁의 위기가 한층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78년 전 버섯구름 아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지금 핵전쟁이 일어나면 지구 그리고 인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원점으로 돌아가 근원적인 질문을 마주해야 합니다.

올해 5월에 열린 G7 히로시마 정상회의에서는 각국의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여 히로시마 평화기념자료관을 방문하고 원폭 피해자와 면담하여, 피폭의 실상을 아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몸소 행동으로 전 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이번 정상회의의 결과물인 <핵군축에 관한 G7 정상 히로시마 비전> 문서에서는 “핵전쟁에 승자는 없으며,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이 히로시마 비전은 핵무기를 가짐으로써 자국을 안전하게 지킨다는 ‘핵 억지력’을 전제로 합니다. 핵 억지력의 위태로움을 보여주는 것은 러시아만이 아닙니다. 핵 억지력에만 의존해서는 핵무기 없는 세상을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구상에서 핵무기를 없애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핵보유국과 핵우산 아래에 있는 국가의 지도자들에게 호소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용기를 내어 핵 억지력에 의존하는 것을 멈출 때입니다. 사람을 중심에

둔 안전보장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대결이 아닌 대화를 통해 핵무기 폐기로 향하는 길을 성실하게 걸어갈 것을 요구합니다.

일본 정부와 국회의원들에게 호소합니다.

전쟁에서 유일하게 원폭의 피해를 본 나라의 행보를 전 세계가 주시하고 있습니다. 핵무기 폐기에 대한 결의를 명확히 보여주기 위해 제2회 핵무기금지조약 당사국 회의에 참관국 자격으로 참가하여 하루라도 빨리 조약에 서명·비준해 주십시오. 그리고 헌법에 명기된 평화 이념을 견지함과 동시에 한반도 비핵화, 동북아시아 비핵지대 구상 등 이 지역의 균축과 긴장 완화를 위해 외교적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지구에 살고 계신 여러분, 잠시 멈춰 서서 생각해 보십시오.

원폭 피해자들은 떠올리는 것조차 괴로운 자신의 피폭 경험까지 이야기하며 핵무기가 얼마나 비인도적인 무기인지 전 세계에 끊임없이 호소해 왔습니다. 이 호소야말로 78년간 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 '억지력'이 되어 왔던 것은 아닐까요?

원폭 피해자의 평균 연령이 올해로 85세를 넘었습니다. 원폭 피해자가 살아있지 않은 시대를 목전에 둔 지금, 진정한 의미의 '억지력'을 앞으로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그리고 핵무기를 폐기할 수 있을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피폭지를 방문하여 핵무기가 가져온 결과를 직접 보고 느껴주십시오. 그리고 전 세계에 지속적으로 전해가야 할 인류 공동 유산이라 할 수 있는 원폭 피해자의 경험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피폭의 실상을 아는 것이야말로 핵무기 없는 세상으로 향하는 출발점이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모두 원폭 피해자인 원폭 피해자 2세입니다. '나가사키가 마지막 피폭지'가 될 수 있도록, 저를 포함한 다음 세대가 원폭 피해자의 생각을 확고히 계승하여, 평화에 대한 의지를 미래로 이어 나갈 것입니다.

일본 정부에 원폭 피해자 지원을 더욱 확충할 것과 하루라도 빨리 피폭 경험자를 구제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원자폭탄으로 돌아가신 분들께 진심으로 애도의 뜻을 올립니다. 나가사키는 히로시마, 오키나와 그리고 방사능 피해를 입은 후쿠시마를 비롯하여 평화를 희망하는 모든 분과 연대하여, '평화의 문화'를 전 세계에 확산시킴으로써, 핵무기 폐기와 항구적인 세계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끊임없이 힘쓸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선언합니다.

2023년 8월 9일

나가사키 시장 스즈키 시로(鈴木 史朗)